수년간 이어진 폭행·노동착취…"엄정 처벌 촉구"

경찰·노동청 조사…가해 업주, 일방적 돈 송금·합의 종용

피해자 지적수준 낮은 사회적 약자…광대 골절 등 치료

〈속보〉 지적 수준이 낮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수년간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으며 노동력을 착취한 악덕 음식점 업주에 대해 수사기관이 본격 조사에 들어갔다. 〈본보 8월 4일자 5면〉

피해자 가족은 업주가 뒤늦게 금전을 입금하고 전화를 반복하는 등 합의를 종용해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10일 광주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최근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 7일부터 내사 중이었던 사건을 정식으로 전환, 해당 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경찰 역시 피해자 가족의 진정서를 접수하고 40대 업주 B씨를 폭행 혐의로 조사 중이다.

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는 한편 경찰과 공조해 사건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경우 검찰 송치와 임금·보험 관련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피해자 50대 A씨는 2020년 지인의 소개로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취업해 주방보조, 식재료 관리, 청소 등을 사실상 전담해 왔다.

B씨는 A씨가 인지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점을 악용해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등의 사유로 상습 폭행을 가해 광대뼈 함몰, 코뼈 골절, 갈비뼈 골절 등을 입혔다. 국자로 머리를 가격해 두부 열상(찢김 상처)을 입힌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 23일에는 "주문한 음식이 잘못 나왔다"며 주방에서 20분 넘게 무릎을 꿇게 한 뒤, 뜨거운 면수를 A씨의 얼굴과 상반신에 쏟아 2도 화상을 입혔다. 그럼에도 B씨는 입원은 물론 기본 치료도 제한하며 출근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병원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폭행 의심 신고를 시도했으나, B씨가 전화를 가로채 무마했다는 정황도 본보 취재로 확인됐다.

본보 확인 결과 A씨의 노동조건도 매우 열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A씨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급여는 최저임금의 약 70% 수준에 그쳤다. B씨는 '기초수급 부정수급자로 신고하겠다'는 협박과 주거지 방문, 심야 통화 등으로 A씨의 이탈을 차단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가 개시되자 업주의 태도는 달라졌다. A씨 가족은 "조사 시작 직후 A씨 통장에 출처 불명의 돈이 입금됐고, 업주가 수차례 전화를 걸어왔다"며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 합의 종용으로 보인다. 수년간의 폭행과 착취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A씨는 화상, 광대뼈·갈비뼈 골절 등 상해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노동청과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피해자 가족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또 '200㎜' 극한호우…광주·전남 생채기

진도·신안 등 시간당 50㎜ 내외…도로 장애 등 11건

광주·전남지역에 200㎜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다.

1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9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주요 지점 누적 강수량은 신안 흑산도 226.0㎜, 신안 홍도 206.5㎜, 해남 196.5㎜, 영암 188.0㎜, 강진 183.4㎜, 완도 176.6㎜, 진도 167.0㎜, 장흥 164.0㎜ 등을 기록했다. 또 진도 48.6㎜, 신안 48.0㎜, 해남 46.5㎜, 강진 46.0㎜, 완도 43.2㎜ 등 시간당 50㎜ 내외 강수량이 집계됐다.

진도, 강진, 흑산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8월 시간당 최다 강수량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이처럼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지역 곳곳에서 호우 피해가 발생해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광주·전남지역에 접수된 비 피해 신고는 총 11건(광주 0건·전남 11건)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로 장애 6건, 도로 낙석 1건, 주택 침수 2건, 배수 지원 1건, 기타 1건으로 확인됐다. 비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날 오전 5시49분 신안군 흑산면에서 비로 인해 주택이 침수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이 현장 조치를 취했고, 앞서 5시30분에는 해남 산이면 한 도로에서 토사가 도로로 쓸려 내려와 당국이 긴급 정비에 나섰다.

또 전남 17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국립공원 5개소와 여객선 3항로 5척, 둔치주차장 2개소, 공원·캠핑장 4개소, 하천변 5개소 등 전남 35개소에 교통통제가 이뤄졌다.

여수와 광양, 구례, 보성, 화순, 강진, 무안, 함평 등 126세대 158명의 주민 사전 대피도 이어졌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시설물 관리와 보행자 안전사고, 낙뢰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

'골목형상점가를 이용합시다' 9일 광주 서구 빛고을초등학교에서 열린 책열음 북캉스를 찾은 시민들이 동천동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먹거리장터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샌드위치 등을 구매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금타 광주공장, 화재 건축물 해체 시작

11월 10일까지…시공사 "살수·소음 준수 약속"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건축물 해체 작업이 11일부터 시작된다.

10일 금호타이어와 시공사 등에 따르면 해체가 이뤄지는 정련동 건물 건축면적은 4만3873㎡, 지상 3층 규모다. 3층짜리 정련동 건물 전체가 철거 대상으로 압쇄 장비를 이용해 3층부터 1층까지 조금씩 부수거나 잘라내는 방식이 사용된다.

시공사는 해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폐기물이 9만62t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25t 덤프트럭 3915대의 물량으로, 건축혼합 폐기물(2249t)도 덤프트럭 98대가 동원될 것으로 예측했다.

해체 작업 기간을 11일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총 92일로 잡고 있다. 단순히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면 작업에 66일이 소요될 것으로 계산된다.

한편 시공사 측은 폐기물 반출 전과 반출 시 살수작업을 진행, 덤프트럭 등 차량 바퀴에 묻은 이물질과 먼지를 제거하기로 했다. 세륜시설을 이용해 트럭이 오갈 때 발생할 수 있는 분진 문제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업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주간 70dB(A) 이하'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임정호 기자 ljh4415@

'지게차 결박·조롱' 가해자 근로기준법 위반 입건

특수감금·폭행도…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300만원 부과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인권침해를 한 사건의 가해자가 폭행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스리랑카 국적의 A씨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벽돌 공장에서 동료 노동자인 B씨에 의해 지게차에 벽돌 더미에 묶여 조롱당했다.

노동부는 B씨가 A씨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이에 B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 등에서 A씨에 대한 집단 괴롭힘 의혹을 제기해 이 부분을 함께 살펴봤으나, B씨의 괴롭힘만 확인됐다고 전했다.

B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노동부는 아울러 해당 업체가 외국인 8명을 포함한 재직자와 퇴직자 21명의 임금·퇴직금 총 2900만원을 체불한 것을 적발했다.

여기에는 이번 A씨에 대한 25만원의 체불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未)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입건해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노동부는 또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최대 3년간 외국인을 신규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어,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을 보호할 때 기준아 달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새 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외국인 근로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

지난 4월 수립한 '외국인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종합대책'을 토대로 노동인권 교육 확대,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을 계기로 대응책을 한층 더 구체화할 계획이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법원 휴정기 종료…경제계 등 주요 재판 '잰걸음'

'학동참사' 항소심 선고…순천 청산가리 살인 재심 심리

진도항 일가족 살해범 첫 재판…청연한방병원 1심 판결

2주간의 법원 휴정기가 마무리 됨에 따라 광주지역 법정에서 경제계 등 굵직한 재판이 이뤄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을 비롯해 각급 재판부는 지난달 7월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였던 법정 휴정 기간에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주요 쟁점을 확인한 재판부는 내주부터 잠시 멈췄던 재판 일정을 재개한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14일 오후 2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부당하게 철거·시공 하청업체를 선정해 1심에서 벌금 1억원이 선고된 HDC현대산업개발과 직원 A씨, 한솔대표 B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21년 6월9일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되는 참사가 벌어진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방식으로 하청 계약을 체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원심에서 현산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한솔기업 대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수사기관은 현대산업개발이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철거·시공 계약을 맺은 후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한솔기업에 하청을 준 것으로 봤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9일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재판을 심리한다. C씨 부녀는 2009년 7월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들 부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지 10년 만인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을 결정했다.

현재 위법·부당 수사 등을 확인하고 있는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공전을 예방하고자 이번 공판에서 당시 수사 검사의 출석 여부에 따라 변론 종결을 결정한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21일 5·18기념재단과 시민군으로 활동한 차복환씨 등이 지만원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 기일을 연다.

지씨는 2023년 1월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라는 책을 발행,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22일 진도항 인근 바다로 승용차를 돌진, 아내와 고교생 아들 2명 등을 살해한 남편 D씨(49)에 대한 첫 재판을 심리한다.

D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1시12분 승용차를 바다로 돌진시켜 자신의 일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기소됐다.

또 같은 재판부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E씨(46)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E씨는 2019~2020년 광주지역에서 한방병원 사업을 확장하며 친분이 있는 지역 재력가나 기업인, 투자자 등에게 171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근로자 기여금 6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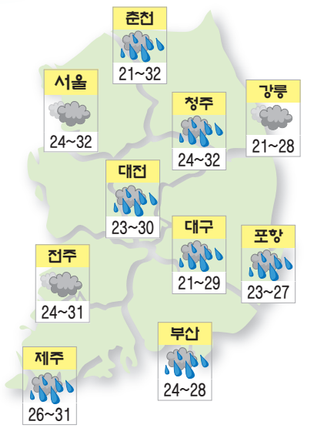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SOCIETY

2025년 8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날씨

해뜸 05:49 / 해짐 19:21 / 달뜸 20:39 / 달짐 07:31



미세먼지 확인하세요!

광주	광주	24~28
	목포	24~27
	여수	25~27
	순천	24~26
	구례	24~28
	해남	23~28
전남	완도	24~29
	흑산도	24~29
	고흥	24~28
	진도	23~28

목포	밀물(고)	05:49 / 19:26
	썰물(저)	20:39 / 07:31
여수	밀물(고)	08:49 / 22:48
	썰물(저)	04:16 / 16:15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악취'

만년필 ○…광주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내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SRF)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악취가 검출.

10일 광주시, 남구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2~13일 양가동 SRF시설 매립장 정문과 SRF 배출구, 부지 경계 등 2곳에서 포집한 악취의 오염도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 의뢰.

검사 결과 배출구에서 공기 농도가 희석 기준치(500이하)를 넘는 669인 것으로 파악.

해당 악취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지속돼 효천지구 주민들로부터 꾸준히 민원이 접수됐었다고.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남구는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SRF 운영 업체에 시설을 개선하는 조치 이행을 권고.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도 내릴 방침. 임영진 기자 looks@